# 에탄올 연료 개발과 사료곡물의 수급불안

**김 정 호**
(사)한국사료협회 회장

국제유가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7월 중순 미국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76.70달러로 치솟았으며 두바이유도 70.39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70달러를 돌파했다.

이 같은 국제유가의 상승은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기는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킴은 물론 국내총생산을 떨어트리고, 소비자 물가를 끌어 올려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유가 행진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못지않게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감당해야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 바로 곡물을 이용한 대체연료의 개발이 몰고올 파장이다.

주지하다 시피 우리의 경우 사료용 곡물의 거의 전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 등

대체 에너지의 생산이 급증하면서 곡물가격의 상승은 물론 향후 사료 곡물의 안정적 확보에도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로 인해 미국에서의 에탄올 가격이 치솟으며 에탄올이 대박을 터트리는 투자처로 인식이 되자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앞다퉈 투자에 불을 댕기고 있다. 골드만 삭스가 카나다의 에탄올 전문 생명공학업체에 3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빌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은 에탄올 생산업체인 퍼시픽 에탄올에 8400만 달러, 공동창업자인 폴 앨런, 구글의 공동창설자인 래리 페이지등도 에탄올 투자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에탄올 투자에 뛰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로부터의 에탄올 생산이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 국립 과학원 회보에 실린 미네소타대학 연구진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옥수수 전부를 에탄올 연료로 전환해도 미국내 자동차 연료 소비량의 12%밖에는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에탄올이 갖는 대체연료로서의 가능 수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배합사료 원료인 옥수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에탄올을 이용한 대체연료 개발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원료의 수급불안정이 깊어진다는 점이다.

미국의 농무성(USDA)이나 옥수수 경작자 협회 등에서는 에탄올 생산으로 인한 옥수수의 부족 사태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에탄올 수요에 대해 옥수수 공급이 따라주지 못할 경우 옥수수의 수급 불안정은 물론 가격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겠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으로 곡물생산량이 급감하는 사태마저 겹쳐진다면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곡물파동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앞선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료용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원료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사전에 차근 차근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옥수수등 사료곡물의 다양화, 장기(Long term)구매방안, 해외사료자원개발등에 대해 사료업계는 물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체화 시켜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사료산업에 있어 이러한 전략적 차원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상당기간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만큼, 일전에 업계내에서 활발히 논의 되어 오던 가칭 " 사료산업 발전 전략 연구소 " 설립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